

## 나가사키 평화선언

바로 그 날, 저 하늘로 솟구쳐 오른 원자구름을 우리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미군기로부터 투하된 한 발의 원자폭탄이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나가사키를 집어삼켰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열선과 폭풍, 방사선. 무너져 내리는 웅장한 성당. 폐허 위에 나뒹구는 검게 탄 망해들. 수많은 유리과편에 찢리고 피부가 녹아 내린 사람들이 무리를 이뤘던, 원폭이 터진 들판은 죽음의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7만4천명이 목숨을 잃었고, 7만5천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마저 빈곤과 차별로 고통 받았으며, 아직도 방사선에 의한 장애로 몸도 마음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올해는 나가사키시 최초의 명예시민인 나가이 다카시(永井隆) 박사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박사님은 나가사키 의과대학에서 피폭하여 중상을 입으면서도, 의사로서 피해자 구호를 위해 분투하셨고, ‘원자병’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나가사키의 종』 등과 같은 저서를 통해, 원자폭탄의 무서움을 널리 전하셨습니다. “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있는 것은 오로지 파멸 뿐.”이라는 박사님의 말씀은 시간을 뛰어넘어 평화의 존엄성을 세계에 호소하였고, 지금도 계속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호소문이 전세계에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집필자는 미국 역대대통령 아래에서 핵정책을 추진해 왔던, 키신저 전 국무장관, 솔츠 전 국무장관, 페리 전 국방장관, 넌 전 상원군사위원장이렇게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은 자국민 미국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추진을 촉구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에서 합의된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여, 모든

핵보유국 지도자들에게 핵무기 없는 세상을 공동의 목표로 하여, 핵무기 삭감을 위해 전력을 다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피폭지로부터 우리들이 거듭해왔던 호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더욱 강력히 핵 보유국에게 요구합니다. 우선 미국이 러시아와 함께, 핵무기 폐기를 위한 노력을 솔선하여 시작해야만 합니다. 전세계 핵탄두의 9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두 나라는 미사일 방위시스템의 유럽 도입 등을 둘러싸고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 아니라, 핵무기의 대폭축소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 프랑스, 중국도 핵군축이라는 책무를 진지하게 수행해가야 할 것입니다.

국제연합과 국제사회는 북한,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방치하지 말고, 이란의 핵 의혹에도 엄정하게 대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미국과 원자력 협력을 할 위험성이 있는 인도에 대해서도 NPT 및 CTBT 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피폭국가로서 핵무기폐기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강력히 요구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일본헌법에 명시된 부전(不戰)과 평화라는 이념 아래, 비핵 3 원칙의 법제화를 실현하여,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창설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나가사키에서는 고령의 피폭자는 심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전하고 있고, 젊은 세대는 ‘미력이기는 하나 무력하지는 않다’는 말을 키워드로 핵무기폐기 서명을 국제연합에 보내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시민은 평화 안내인으로서 피폭지에 서서 그 실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계자는 평생 계속되는 피폭자의 건강문제에 진지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들은 히로시마시와 협력하여, 전세계 2300 개 이상의 도시가 가입하고 있는 세계평화시장회의 총회를 나가사키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세계

도시들과 결속하여, 2010 년 NPT 재검토회의를 대비하여 핵무기폐기를 호소하는 활동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비핵선언을 한 국내 자치체에도 나가사키시가 강력히 호소하여 활동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핵무기 사용과 전쟁은 지구전체의 환경을 파괴합니다. 핵무기 폐기 없이 인류의 미래는 없습니다. 전세계 여러분, 젊은 세대 그리고 NGO 관계자 여러분, 핵무기 ‘NO!’라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피폭으로부터 63 년이 흘러, 피폭자는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에는 국내의 피폭자의 실태에 적합한 원조를 서둘러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삼가 원폭으로 돌아가신 영령들의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핵무기 폐기와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8 년 8 월 9 일

나가사키 시장 다우에 도미히사(田上富久)